



2020 제주 문화계 결산 ④ 공연

# 첫 온라인 관악제... 4·3오페라 등 창작 무대

해비치축제와 4·3마당극제 베토벤 탄생 250주년 무대 랜선 이용한 공연 한층 늘어 도립무용단은 30주년 공연 제주합창단 새 지휘자 맞아



제주4·3을 그린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이 지난 11월 제주아트센터에서 초연돼 온·오프라인으로 관객들과 만났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제주 문화예술계가 예외없이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았지만 공연예술 분야 체감도가 특히 높았다. 공연의 특성상 한낱한시에 이뤄지며 거리두기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공연이 한층 확산됐다. 이는 한편으로 공연의 한 요소인 관객과의 교감이 반감된다는 점에서 과제를 남기고 있다.

▶무대 줄어들자 영상 콘텐츠로 참여 확대=사반세기 제주국제관악제는 지난 1월 스티븐 미드 예술감독의 마스터 클래스로 발을 떼며 겨울까지 아우른 음악축제를 시도했지만 코로나 시국을 뚫지 못했다. 8월 국내팀 위주로 규모와 일정을 축소해 온라인 축제로 치렀고 국제관악공쿠르도 결선까지 영상 심사로 진행했다. 국내 최대 규모 공연예술축제인 13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도 온라인을 중

심으로 마련됐다. 놀이패 한라산의 제14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역시 동영상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무대가 줄며 생계가 막막해진 지역 예술계에 영상으로나마 공연 기회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 공연에 대한 갈증을 반영하듯 지난 5월 공모로 추진한 제주예총 온라인 콘서트엔 60팀이 몰렸다. 제주예총은 제주도와 손잡고 문화가 있는 날 공연도 랜선을 이용해 펼쳤다. 제주도가 제주문화에 술제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제주 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인물다'를 통해선 공연 영상 콘텐츠를 제공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연주도 해비치아트페스티벌도 온라인을 중

회, 피아니스트 이동용은 피아노 소나타 등을 선곡했고 앙상블 카메라타는 탄생일에 맞춰 뮤지컬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공연 취소나 연기가 잇따랐다. 지난해까지 17회에 걸쳐 서울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로 향했던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은 올해 코로나 여파로 불참했다.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선정=코로나에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무대는 계속됐다. 제주시와 4·3평화재단이 공동 제작한 최정훈 작곡의 4·3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은 제주 성악가 등 190명이 참여해 11월 제주아트센터에서 초연됐고 향후 완성도를 높이려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이 나왔다. 5개 제주도립예술단은 첫 합동공연으로 이탈리아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 두 편을 선보였다. 제주도연극협회는 새로운 버전의 창작극 '홍윤애의 비가'로 관객들과 만났다. 클래식 음악 축제의 지평을 넓히려는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도 올해 국내팀을 위주로 열렸다.

남보도 이어졌다. 제주빌레앙상블과 제주팝스오케스트라는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 각각 우수공연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참가한 극단 가람의 창작극 '올여! 바다야'의 극본을 쓴 이상용씨는 희곡상을 수상했다. 영주고등학교 공연예술동아리는 창작극 '얼굴'로 제24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단체 대상 등 5관왕을 차지했다.

제주도립무용단은 올해 창단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7월 전·현직 안무자가 출연한 '명불허전'을 온라인 공연하며 30주년을 기념했다. 이들은 레퍼토리와 사업으로 '이여도 사나' 두 번째 무대를 올렸다.

도립 제주합창단은 2년여 공백을 딛고 10대 지휘자를 맞았다. 반면 제주교향악단은 현 지휘자가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자를 공모하고 있다. 전선희기자

## 제주색 품은 창작관악곡 전국 보급

강동규·이현호 창작곡 관악제 공모 2곡 선정

제주 소재 창작관악곡 악보집이 나왔다.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위원장

현을생)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창작관악곡집을 출판해 제주 등 전국 중·고교와 대학, 일반 관악단 등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악제조직위는 올해 한국 관악작품의 세계화를 취지로 창작관악곡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14개 출품작 중 7곡을 선정해 11월 9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지휘 이현호)이 초연하는 무대를 열었다.

이번에 나온 악보집은 2권이다. 강동규 작곡 '독수리 날개 아래'와 이현호 작곡 '이여도 사나'로 관악단 보급용으로 선별해 비매품으로 출간했다.

'독수리 날개 아래'는 경쾌한 분위기의 곡으로 날개를 다쳐 자연생태공원에서 보호 중인 독수리가 다시 회복하여 제주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며 만들었다. '이여도 사나'는 바다에서 노를 저으며 부르는 해녀노래를 기본 테마로 했다. 민요의 메기고 받는 형식을 살렸다. 전선희기자

## "서귀포시민회관의 추억을 찾습니다"

철거 앞뒤편 1월 15일까지 사진·역사·이야기 공모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민회관의 역사와 시간, 추억이 담긴 사진과 사연을 내년 1월 15일까지 공모한다.

시는 서귀포 시민 문화·체육복합센터를 신축하며 1972년 건립돼 반세기 가까이 시민과 함께해 온 서귀포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있다.

시는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자료 소실에 대비하고 시민회관과 그 일대에 대한 기록 및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개인 소장 사진과 사연을 공모하고 있다. 공모한 원본 사진은 스캔 후 공모자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다.

사연 신청은 시민회관과 관련한 이야기거리(추억)를 갖고 있는 이라면 누구나 A4 1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한 후 사진 및 사연과 함께 직접 방문(서귀포시 제1청사 2층 공보실)하거나 이메일(seogwipo-si@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교로가 지급된다.

시는 채택된 작품들에 대해 시정 소식지 '희망 서귀포'를 통해 선보이고 추후 아카이빙을 위한 자료로 활용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갤러리ED 지상전 (1)김현숙의 '화란춘성'

## 침묵하는 봄 딛고 꽃피는 계절을



갤러리 이디(ED) 지상전을 마련했다. 한라일보 1층 갤러리 이디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로 꽃피고 하얀 눈 소복이 내리는 화면을 통해 새로운 나날을 꿈꿔보자.

한지와 먹이 바탕이 된 꽃이 찬 계절에 피어났다. 초록 화면을 배경으로 하얀 꽃잎을 띄웠다. 제주 김현숙 작가의 '화란춘성(花爛春城)-침묵하는 봄' 연작이다.

한창때의 봄날을 그려낸 '화란춘성'은 역설적이게도 감염병이 휩쓴 이 시국에 그려졌다. 작가는 '비대면'이라는 고독의 시간에 붓을 들었고 그 꽃들은 더 싱그러워 생명을 뿜어냈다. 2020년, 꽃피어도 꽃피는 봄이 아닌 세상에서 작가는 안간힘으로 봄을 불러왔다.

파도처럼 물결 치는 꽃잎들은 감귤꽃에서 영감을 받았다. 봄날이면 진한 향기를 흠뻑리는 감귤꽃의 진가는 제주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모른다. 육지 사람들이 보는 건 대개 나뭇가지 끝에 여문 주황색 감귤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꽃들 사이로 시멘트 바

른 돌집 형태의 감귤장고나 굴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보인다. 화려로 물러오는 감귤꽃 내음 너머에 그 봄을 일구는 누군가의 탐이 있다.

그의 작업은 2합이나 3합의 장치 배면(背面)을 이용해 이뤄진다. 앞면의 붓질이 더러 배이고 더러 숨으며 화면 위 하늘도 되고 땅도 된다.

갤러리 이디엔 40호 크기 작품 등 3점이 나왔다. 2020년 신작들이다. '침묵하는 봄'이 우리에게 조용한 메시지를 던진다.

김 작가는 제주대와 성신여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3년 이래 지금까지 15회 개인전을 가졌다. 제주도립미술관장을 지냈고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화여성작가회, 창작공동체 우리, 한국 화동정교회 회원 등으로 있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광화문아트포럼 선정 '올해의 작가'로 선정돼 현재 서울에서 초대전을 열고 있다. 갤러리 연락처 750-2543.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제주문예재단·문화도시센터 지역문화활성화 협력 맞춘

제주문예재단(이사장 이송택),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광준), 제주시문화도시센터(센터장 김병수)가 '문화도시 제주'를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문예재단은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협력모델을 마련하

기 위해 제주시문화도시센터·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1일 진행된 협약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원과 교류, 지역문화기획자·예술가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지원과 협력, 지역문화활성화 분야 전문과 지원, 지역문화공간과 프로그램 지원·협력 등을 내용으로 이뤄졌다. 전선희기자

# 어류행동 및 개체·AI 데이터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어류AI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여 주실 크라우드 워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세계최초로 주요 양식어종에 대하여 사육환경, 성장에 따른 생물학적 특징변화 및 행동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핵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양식산업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AI 자동화 관리 서비스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 ▶국내 주요 양식어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에 대한 세계최초 체계적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 ▶국내 양식산업 율가 경쟁력 확보
- ▶어병, 수질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대량 폐사 방지
-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발전 기여

어류 AI학습 데이터 구축 작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크라우드 워커 모집

- 모집대상: 19세 이상, 성별 무관
- 바운딩박스 어류 분류 이미지 기반 데이터 작업
- 핵심: 체장, 체고 데이터 작업
- 작업 경로: <https://fishai.kr>

메뉴얼 경로

[https://works.gb.it/works/files/manual\\_worker.pdf](https://works.gb.it/works/files/manual_worker.pdf)



- 바운딩박스
- 체장
- 체고